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1/3
 이메일 : beijingk@kita.net

1 제3회 중국국제소비재박람회(4/10~15), 하이난성 하이커우시에서 개최

-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제3회 중국 국제 소비재 박람회'가 오는 4월 10일부터 15일까지 하이난성 하이커우시에서 개최되며 4월 14일과 15일은 일반 관람객 관람일로 4월 1일부터 14일까지 티켓 10만 장을 판매할 계획
- 전시장 면적은 전년 대비 2만 평방미터 확대된 12만 평방미터로 참가 브랜드 및 바이어수 모두 지난 2회를 상회할 전망이며, 글로벌 유명 브랜드가 대거 참가하고 여러 브랜드가 신품을 선보일 예정
- 박람회 기간 '글로벌 소비재 포럼' 뿐만 아니라 설명회, 상담회,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며 해외 정계인사, 다국적기업 관계자, 해외 바이어가 행사에 참가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경제참고보

http://www.jjckb.cn/2023-03/24/c_1310705300.htm

2 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 개최

-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에서 주최하고 '경제 회복 : 기회와 협력' 주제의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이 3월 25일 베이징시에서 개최되었으며 국내외 학자, 기업가와 정부 관계자, 국제조직 대표가 참가함
- * '중국발전고위급포럼'은 양회 이후 개최하는 첫 번째 국가급 포럼으로 2000년부터 개최
- 개막식에서 덩쉐상(丁薛祥) 부총리는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개방·공평·공정·무차별의 과학기술 발전환경 마련을 강조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탄소저감·환경보호, 오염 예방·퇴치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발전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시함
- 예일대학교 애널리스트는 2001년부터 동 포럼에 참가했는데 내수 확대는 시종 포럼의 주요 의제로 내수 확대 면에서 총요소 생산성(TFP)의 작용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제시했음
- * 총요소 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이란 노동 생산성 뿐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본투자금액, 기술도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생산 효율성 수치로 노동, 자본 등 단일요소 생산성 측정에는 포함되지 않는 기술, 노사, 경영체 제, 법·제도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총요소 생산성 증가는 흔히 기술혁신을 의미

- 컬럼비아대학교 교수는 중국은 에너지 분야에서 일대일로와 RCEP 등 플랫폼을 활용하고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선진적인 에너지 기술로 국경간 에너지 수송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내 여러 국가와 긴밀한 파트너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건의함

자료원 : 신화망, 베이징일보

<https://www.chinanews.com/gn/2023/03-26/9978929.shtml>

<https://baijiahao.baidu.com/s?id=1761399454982530724&wfr=spider&for=pc>

3 中, 수입산 석탄에 올해 연말까지 잠정세율 0% 적용

-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석탄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산 석탄에 계속하여 잠정세율 '0%'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대외로 발표함
- 해당 품목은 무연탄, 점결탄 등을 포함한 7개 품목(HS 코드 : 27011100, 27011210, 27011290, 27011900, 27012000, 27021000, 27022000)으로 최혜국 세율은 3~6% 사이인데 올해 말까지 전부 잠정세율 '0%'가 적용됨
- 해관총서에 따르면 1~2월 중국의 석탄 및 갈탄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70.9% 증가한 6,064만 톤, 수입액은 574억 위안(약 11조원)이며, 수입 평균 단가는 톤당 947위안(약 18만원)임. 주로 인도네시아, 러시아, 몽골 등 국가로부터 석탄을 수입하는 것으로 집계됨

자료원 : 중국 재정부, 해관총서

http://gss.mof.gov.cn/gzdt/zhengcefabu/202303/t20230324_3874696.htm

<https://baijiahao.baidu.com/s?id=1759715798450419198&wfr=spider&for=pc>

4 中, 1~2월 철강 수출량 49% 증가...5월까지 수출 양호 예상

- 텐진시에서 철강 무역 종사업체 관계자는 올해 정부의 지원정책과 해상 운송비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1~2월 철강 수출이 증가세를 보였으며 동남아, 호주, 아프리카 지역의 주문이 늘어났다고 밝힘
- 해관총서에 따르면 1~2월 중국의 철강 수출량은 전년 동기대비 49% 증가한 1,219만 톤이며, 업계 관계자는 철강 수출이 증가한 원인을 국제적으로 철강 공급 긴장, 가격 상승, 중국의 철강 수출가 우위 등을 꼽았음

- 란거(兰格)철강연구센터에 따르면 1월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기타 지역의 조강 생산량은 전년 동기대비 10.2% 감소한 6,580만 톤, 이 중 EU(27개국)의 조강 생산량은 전년 동기대비 15.2% 감소, 기타 유럽 국가는 전년 동기대비 17.5% 감소함. 이와 반면 중국의 1~2월 조강 생산량은 전년 동기대비 5.6% 증가한 1억 6,870만 톤에 달했음
- 란거(兰格)철강연구센터 관계자는 중국의 철강 수출량은 월별 500~600만 톤 수준을 유지하고 3, 4월 수출량이 여전히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5월은 전년 기준치가 높아 증가율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비교적 크다고 분석함

자료원 : 증권일보

http://www.ce.cn/cysc/ny/gdxw/202303/23/t20230323_38458024.shtml

5 中, 광둥성 스링진, 가방·가죽제품 산업 업그레이드 도모

- 광둥성 광저우시의 스링진(狮岭镇)의 가방·가죽제품 산업클러스터에는 8,800여개의 가방·가죽제품 생산 및 가공업체가 소재해 있으며 산업 업그레이드를 도모하고 있음
- 상기 산업클러스터의 가방·가죽제품 연간 생산량은 7억 개, 산업규모는 300억 위안(한화 약 5.7조원), 142개 국가와 지역에 제품을 수출 중임. 한편 규모이상(연매출 2,000만 위안 이상) 생산업체가 200여 개사, 연간생산액 1억 위안(약 189억원) 이상인 업체 20개사, 첨단기술 업체 30개사가 소재해 있음
- 산업클러스터에 소재한 여러 기업은 R&D센터를 건설하고 신기술과 신소재를 가죽제품과 가방 연구개발 및 생산에 응용하여 더 간편하고 멋스러운 제품으로 소비자의 수요를 만족시켜 주고 있음
- 마케팅 면에서는 라이브 방송 판매시 '쇼호스트+디자이너' 방식으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소비자의 수요를 파악하고 빠르게 디자인 및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취함. 이 지역의 라이브 방송 쇼호스트는 5,000명 이상이며, 가방·가죽제품을 매일 60만 개씩 판매하고 있음

자료원 : 광명망

<https://baijiahao.baidu.com/s?id=1761213795245658275&wfr=spider&for=pc>

6 中, 1~2월 커피 소비 대폭 증가...투자 유치도 활발

- 도시 활력을 보여주는 지표 중의 하나인 커피 소비가 올해 대폭 증가하는 추세
- 메이완 발표에 따르면 1~2월 커피 배달서비스 주문량이 전년 동기대비 101.9% 증가했고, 베이징시,

상하이시, 청두시 등 전국 각지의 주문량이 모두 급증함

- 한편 올해 3월에만 △샤오카주(小咖主, 1억 위안 규모의 시리즈A 투자 유치, 아프리카 커피 사용) △CLOVESCOFFEE 스예카(四叶咖, 수천 만 위안의 투자 유치, 원난커피 사용, 원난지역에 40개 점포 오픈) △하이관(嗨罐, 원난커피 사용) △AuCafé 등 4개 브랜드가 투자를 받았음

자료원 : 증권일보망

<http://www.zqrb.cn/finance/hangyedongtai/2023-03-23/A1679555768500.html>

7 中, 발전 잠재력이 가장 높은 10대 도시 발표

- 중국의 저명 경제학자 런저핑(任泽平) 연구팀은 '중국 도시 발전잠재력 순위 : 2022'를 발표했으며, 중국내 337개 도시의 발전 잠재력을 분석하고 10대 도시(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항저우, 청두, 쑤저우, 난징, 우한, 충칭 순)를 선정
- 도시별 특징을 보면 △베이징시(1위) : 정치, 문화 국제교류 및 혁신 중심지. 3차 산업 비중이 82%이며 금융, 본사경제를 발전시키고 과학기술 혁신 도모 △상하이시(2위) : 글로벌화 발전을 도모, 향후 뉴욕과 어깨를 겨룰 전망. 중국 경제의 심장으로서 글로벌 경제금융 중심으로 발돋움. 자동차, 전자, 금융 등 기간산업과 일련의 유망 IT기업을 육성 △선전시(3위) : 개혁개방 정책에 힘입어 혁신 도시로 성장. 1979년 GDP가 홍콩의 1/11에 불과했지만 2018년 홍콩을 상회, 10년간 상주 인구가 70만 명 증가하여 전국 1위 차지. 전략적 신산업(에너지절감·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을 기간산업으로 간주하며 관련 산업의 2021년 부가가치가 GDP의 40%를 차지 △광저우시(4위) : 광둥성 제조업의 중견 역량. 자동차·전자·석유화학 제조업은 광저우시의 3대 기간산업으로 공업 생산액의 절반 이상 차지 △항저우시(5위) : 민영경제 발전 양호, 전국적으로 앞선 '디지털 스마트 도시'. 최근 5년간 인구 연평균 증가율이 장강삼각주 지역 1위, 민영경제와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성장 △청두시(6위) : 신(新) 1선 도시 중 앞자리, 서부지역에서 경제성장 독보적. 전자산업이 기간산업으로 공업 생산액의 62%를 차지, 충칭시와 자동차, 전자 등 산업에서 경쟁 및 협력 관계 △쑤저우시(7위) : '세계 공장'에서 '혁신 발전' 도모. '글로벌 공업 대도시'로 공업 생산액이 선전시 뒤를 이음 △난징시(8위) : 새로운 성장 도모. 자동차, 철강, 전자, 석유화학을 기간산업으로 반도체 산업 집중 육성 △우한시(9위) : 중부 지역 굴기의 전략적 도시. 철강 및 심가공, 자동차, IT기술, 의약 등 공업체계를 완비 △충칭시(10위) : 서남지역의 2대 주요도시 중 하나. 자동차, 전자 산업이 기간산업이며 공업 생산액의 40%를 차지, 정전특신(정밀화·전문화·특성화·혁신) 기업 육성 가속화

자료원 : 금융계

<https://baijiahao.baidu.com/s?id=1760844679509915899&wfr=spider&for=pc>

8 中, 신에너지차 시장 경쟁 심화

-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을 보면 올해부터 보조금 정책이 본격 중단되고 치열한 가격전쟁을 펼치고 있으며, 일부 지방정부는 공장 건설이 순조롭지 못하거나 생산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음
- 웨이마자동차(威马汽车)의 경우 2017년 9월 저장성 원저우시에 공장 건설을 완공했으나 5년 이후인 현재 위기에 처하여 저장성 원저우(温州, 연간 생산능력 10만 대)와 후베이성 황강(黄冈, 연간 생산능력 15만 대)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음
- 업계 관계자는 일부 신에너지차 생산업체는 제품을 출시해 보지도 못하고 시중에서 퇴출했고 일부 기업의 생산능력은 숫자에 불과하다고 밝힘. 예로 장시성(江西)의 경우 2015~2017년 6월 사이 18건의 신에너지차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했는데, 이 중 7건은 건설을 시작하지 못하고 건설에 착공한 11개 프로젝트 중 절반 이상이 제시기간에 건설을 완공하지 못함. 장쑤성(江苏省) 개혁발전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장쑤성의 자동차 생산능력 이용률이 33.0%로 전국의 평균 수준 대비 20%p 낮았음
- 중관촌신형배터리기술혁신연맹(中关村新型电池技术创新联盟) 비서장은 생산능력의 80%를 이용하면 적절한 수준이지만 일부 지방정부는 투자유치만 중시하고 관리를 소홀히 했고, 또 일부 기업은 보조금 혜택만 보고 신에너지차 사업에 뛰어들어 시장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출시하지 못하는 것이 생산능력 이용률이 낮은 중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함
- 중국정협경제위원회 마오위(苗圩)는 올해 신에너지차 보급률은 30%, 즉 900만 대로 예상되며, 80%의 생산능력 이용률로 계산시 1,120만 대의 신에너지차 생산능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함. 이로써 현 단계는 생산능력 과잉문제가 존재하지 않지만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려면 충분한 경쟁과 우승열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중국의 신에너지차 산업이 현재 이러한 과정을 겪고 있다고 전했음
- 한편 일부 지방정부는 경쟁 과정에서 시장점유율 제고를 기대하고 있음. 2022년 산시성(陕西)의 자동차 생산량은 133.8만 대, 생산량 증가율이 66.9%로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신에너지차 생산량이 102만 대로 전체 자동차 생산량의 76.2%에 달했고 전국 신에너지차 생산량의 14.5%를 차지함. 이러한 실적 달성은 비야디(BYD) 공장의 공헌이 크며, 비야디 시안 공장인 제4기 확장 건설에 들어가 올해 6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생산능력이 140만 대에 달할 전망
- 이와 반면 충칭시의 경우 2016년 316만 대의 자동차 생산량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으나 2021년 생산량이 200만 대에 불과. 상하이 푸둥신구는 2020년부터 자동차 산업이 IT 제조업을 추월한 최대 산업으로 부상하고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30% 미만에서 2021년 50%로 상승. 이 과정에서 테슬라 상하이 슈퍼 공장이 큰 몫을 담당함

자료원 : 중국뉴스주간

<https://baijiahao.baidu.com/s?id=1761481040066853083&wfr=spider&for=pc>